

중국 타이완 남도어족 세덕어의 한글 서사법 창제*

전광진**

◁ 목 차 ▷

- I. 서론
 - II. 한글 서사의 원칙 및 검토
 - 1. 자음의 서사
 - 2. 꼬리자음의 서사
 - 3. 모음의 서사
 - 4. 음절 구조와 복자음 문제
 - III. 세덕어 한글 서사법(안)
 - IV. 세덕어 한글 서사 예시
 - 1. 기본 어휘(237)
 - 2. 문장 예시(10)
 - V. 맺음말
-

I. 서론

일찍이 Formosa란 이름(‘보물섬’이란 뜻)으로 서구에 알려진 타이완 섬에는 漢族이 이주하기 훨씬 이전부터 남도어족의 언어를 사용하는 민족들이 거주하고 있었다. 남도어족(Austronesian family)은 세계에서 가장 넓은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어족이다.¹⁾

* 이 논문은 2013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3S1A5A2A01017268).

** 성균관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교수.

1) 남도어족 언어 분포도는 陳雨嵐(2005, 17)에서 인용한 것이다. Peter(2009, 343)에는 우주선에서 촬영한 사진이 소개되어 있는데, 명도가 낮아 이것을 취하였다. 남도어족 가운데 고유의 문자가 없는 민족들이 많고, 한글로 서사하기에 매우 적합한 언어적 특성과 조건을 갖추고 있어 앞으로 한글이 보급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곳이



〈그림1〉 남도어족 언어 분포도

북쪽으로는 타이완 섬, 서쪽으로는 아프리카 남단의 마다가스카르 섬, 동남쪽으로는 하와이섬, 남쪽으로는 뉴질랜드에 이르기까지 분포되어 있다(참조 <그림1>). 인도양과 태평양의 여러 섬지역의 원주민 언어가 이에 속하는데, 사용 인구는 약 2억 정도이며, 약 500여 종의 언어가 이에 속한다고 한다(陳康 1988, 299). 이 어족의 언어 특징은 ①무성조-다음절 언어(뉴기니아의 加本어만 성조가 있는 것으로 추정)이고, ②음절 구조가 대부분 CV, 혹은 CVC (복자음이 거의 없음)이며, ③모음이 단순하고 복모음이 거의 없고(i, u, ə, a ; ay, aw). ④자음의 숫자가 적고 단순하며 간혹 小舌音 q, 咽壁音 ʔ 같은 특수 자음이 있는 것이라고 한다(何大安·楊秀芳 2000, 6). 이러한 남도어족 언어들의 특성은 한글 서사가 매우 유리하고 적합한 조건으로 작용한다. 특히 자음의 수가 적어 한글 자모로 대응시키기에 충분하고, 복자음이 없어 음절 단위로 모아쓰기가 가능하다는 점이 그러하다. 따라서 남도어족에 속하는 언어들 가운데 아직도 서사 체계가 없는 언어를 대상으로 한글 서사 방안을 강구하면 한글의 지평을 넓히는 데 크게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임을 학계에 보고한 바 있다(전광진 2009).

남도어족 가운데 지리적으로 우리와 가장 인접한 것은 타이완 섬의 원주민 언어들이다. 고산(高山) 지대에 거주한다고 하여 예전에는 ‘고산족(高山族)’이란 폄하적인 명칭으로 불렸다. 요즘 그곳 정부가 ‘원주민(原住民)’이란 공식 명칭을 사용 할

다. 따라서 이 분야의 연구를 적극 권장하고 학계의 관심을 고조시키고자 하는 의도에서 이 그림을 옮겨 놓았다.

만큼 상당한 예우를 하고 있다. 그들은 고유의 문자가 없는 이른바 무문 민족들이다. 그래서 2009년에 타이완의 원주민 언어 10종을 대상으로 한글 서사법 개발에 관한 개괄적인 연구를 한 바 있다.

한글 서사 적합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타이완 원주민 10종 언어에 대하여 머리자음, 꼬리자음, 모음, 음절구조 이상 4가지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 부눈어(布農)가 평균 88%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루카이어(魯凱)가 85%로 2위, 야미어(雅美)와 세덕어(賽德克)가 각각 83%로 공동 3위로 집계되었다(전광진 2009). 부눈어와 루카이어에 대하여는 이미 2010년과 2011년에 한글 서사체계를 창안하여 학계에 보고한 바 있다.

이 논문에서는 그 나머지 두 언어 가운데 세덕어에 대하여 한글 서사법(안)을 강구해 보기로 한다. 세덕어 사용 인구는 1만 4천 여 명으로 타이완 원주민 언어 가운데 4번째로 많으며, 주로 타이완 섬의 중부 南投縣 仁愛鄉에 분포되어 있다(참고 <그림 2>).



<그림 2> 타이완 원주민 세덕어 분포도

2009년에 발표한 초보적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세덕어의 음운 체계를 다시 검토하고 분석함으로써 세덕어 한글 서사법의 초안을 입안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기본 목적이다. 세덕어의 4종 음절구조와 5종 모음 체계는 한글 서사에 있어서 결립돌이 전혀 없다. 그러나 李壬癸(1991), 張永利(2000)의 언어 조사로 밝혀진 18종 머리자음과 11종 꼬리자음을 음운론적으로 더욱 간략화 할 가능성이 있는 지?, 현용 한글 자모로는 서사가 불가능한 /q/, /ng/, /w/, /y/ 같은 음소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x/과 /h/, /l/과 /r/의 대립을 어떻게 서사할 것인지? 등등 많은 문제들이 산재해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러한 세부적인 문제들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세덕어 한글 서사 방안을 강구하고, 이를 기본 어휘 및 문장을 대상으로 적용시켜 봄으로써 한글 서사의 적합성과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증명해 보고자 한다.

II. 한글 서사의 원칙 및 검토

무문(無文) 민족의 언어를 한글로 서사하는 방법을 탐색함에 있어서 반드시 일정한 원칙이 있어야 한다. 로바어, 어윙키어, 부눈어, 루카이어에 대한 한글 서사체계를 고안할 때(전광진 2002; 2008; 2010; 2014)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원칙을 적용하였다.

- 첫째, 대응 한글 자모의 선정은 음성학적 유사성을 최우선으로 한다.
- 둘째, 현재 사용되고 있는 한글 자모를 최대한 활용한다. 다만 컴퓨터 입력이 가능하다면 '옛 한글 자모'도 취할 수 있다.
- 셋째, 보조 기호의 사용은 최소화한다. 이 원칙은 컴퓨터 활용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서사체계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함이다.
- 넷째, 대상 언어의 음절 구조를 최대한 존중한다.

세덕어의 한글 서사에도 이 네 가지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하겠다.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그렇게 하는 것이 연구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기할 수 있겠기 때문

이다.

1. 자음의 서사

(1) 파열음 : /p/와 /b/, /t/와 /d/, /k/와 /g/, /q/

세딕어의 파열음은 유성과 무성의 대립을 이루는 /p/와 /b/, /t/와 /d/, /k/와 /g/, 그리고 유성을 짝이 없는 /q/, 이상 7 가지가 있다. 이 가운데, 꼬리자음으로도 등장되는 것은 /k/와 /q/ 밖에 없다. 무성음과 유성음이 서로 대립되는 6종 자음은 그 한글 서사가 비교적 간단하다. 음성학적 유사성 원칙에 따라 각각 /ㅍ/과 /ㅂ/, /ㅌ/과 /ㄷ/, /ㄱ/과 /ㄴ/으로 서사하면 될 것이다. 그런데 유성을 짝이 없는 /q/가 문제다.

먼저 /q/에 대한 음운론적 연구 결과를 살펴보자. 李壬癸(1991), 張永利(2000), 原民會(2005) 모두 하나의 독립된 음소로 보고 있다. 李壬癸(1991)는 “q는 合作村에서는 爲咽部塞音[?]로 발음되고, 기타 方言은 모두 小舌파열음으로 발음한다. 따라서 이 음소의 부호를 小舌파열음 q로 정하였다....合作村的 [?]가 어미에 출현할 때에 유기 성분을 지니어 [ʔh]로 발음한다.”²⁾라고 하였고, 張永利(2000)는 “세딕어는 중국어에 없는 ‘小舌-무성-파열음’(uvular) /q/가 있다. 세딕어에서는 k와 q가 독립적인 음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예를 들어, baki ‘할아버지’와 laqi ‘어린이’가 대립되고 있다.”³⁾라는 부연 설명을 하고 있다.

張永利(2000)는 /q/가 독립 음소임을 주장하기 위하여 준동음어(Minimal pair)를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그가 예시한 “baki ‘할아버지’와 laqi ‘어린이’는 엄격하게 보자면 준동음어로 보기 어렵다. [k]와 [q] 외에 [b]와 [l]의 차이도 있기 때문이다. 음운의 서사(writing)은 음운의 표기(notation)와 달리 간략하면 간략할수록 좋다. 따라서 세딕어의 [q]는 /k/의 변이음으로 간주하기로 한다. [q]가 그것이 머리자음일 때에는 /k/ 같이 /ㄱ/로 서사하기로 한다. 기본 어휘 237개를 대

2) “q在合作村讀爲咽部塞音[?], 其它方言都是小舌塞音讀法, 因此把這個音位的符號定爲小舌塞音q.合作村[?]出現字尾時也釋放氣流, 成爲[ʔh].”

3) “和其他典型的台灣南島語一樣, 賽德克語有英語、日語和漢語所沒有的〈小舌清塞音〉(uvular)/q/. k和q在賽德克語是兩個不同的音位, 例如, baki‘爺爺’相對於laqi‘小孩’.”

상으로 조사해본 결과 그 두 자음이 대립되는 준동음어가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다. 따라서 그렇게 동일하게 서사하더라도 의미 변별이 혼동되는 예가 없을 것 같다. 그리고 [q]가 꼬리자음일 때에는 /ㄱ/으로 서사하기로 한다. /g/가 꼬리자음으로는 쓰이지 않기 때문에 /ㄱ/으로 서사하더라도 충돌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 파열음에 속하는 6종 자음을 가진 기본 어휘를 한글로 서사하여 예시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

- ① /p/ → /ㅍ/
- | | | |
|---------------|----------|-------|
| [빠루] | ‘크다’(大的) | paru |
| [빠뽁] | ‘발’(脚) | papak |
| [빠잇] | ‘적’(敵人) | pais |
- ② /b/ → /ㅂ/
- | | | |
|----------------|-----------|---------|
| [보이약] | ‘멧돼지’(山豬) | boyak |
| [부구랄] | ‘새것’(新的) | bugurah |
| [부기홀] | ‘바람’(風) | bugihul |
- ③ /t/ → /ㅌ/
- | | | |
|---------------|------------|------|
| [따끼] | ‘잠자다’(睡) | taqi |
| [따라] | ‘기다리다’(等候) | tara |
| [따마] | ‘부친’(父親) | tama |
- ④ /d/ → /ㄷ/
- | | | |
|---------------|-----------|--------|
| [다라] | ‘피’(血) | dara |
| [다룩] | ‘지방’(油脂) | daruq |
| [다링] | ‘가까운’(近的) | daling |
- ⑤ /k/ → /ㄱ/
- | | | |
|----------------|----------|---------|
| [꾸누를] | ‘옥상’(屋頂) | kunuruh |
| [꾸두류] | ‘이마’(額) | kuduruk |
| [꾸류] | ‘거북’(龜) | kuluk |
- ※ 참고 : /q/ → /ㄱ/
- | | | |
|---------------|----------|-------|
| [꼬릿] | ‘들쥐’(田鼠) | qolic |
| [꼬미] | ‘바늘’(針) | qomi |
| [꾸띠] | ‘눈곱’(屎) | quti |
- ⑥ /g/ → /ㄱ/
- | | | |
|----------------|------------|---------|
| [가가] | ‘그것’(那個) | gaga |
| [가밀] | ‘뿌리’(根) | gamil |
| [구라간] | ‘평’(山雞, 雉) | gulaqan |

(2) 파찰음 : /c/

세딕어의 파찰음은 /c/ 하나밖에 없다. 이것은 머리자음과 꼬리자음 모두에 등장된다. 李壬癸(1991)는 “ts는舌尖과舌面이 혼합된 무성 파찰음으로, 발음부위가 t, d에 비하여 약간 뒤쪽으로 英語의 [tʃ]보다는 약간 앞이다. 복자음으로 오해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c로 표기한다. c가 語頭나 語中에서는 무기음인데, 語尾에서는 유기음으로 발음된다.”⁴⁾라고 하였고, 張永利(2000)는 “c는 설첨과 설면의 중간에서 발음되는 무성 마찰음으로, 그 발음 부위가 t, d에 비하여 약간 뒤쪽이고, 영어 [tʃ]에 비하여 약간 앞쪽이다.”⁵⁾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 자음을 한글로는 초성 중성을 막론하고 모두 /ㄷ/으로 서사하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다. 이에 대한 한글 서사를 예시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

/c/ → /ㄷ/

[추메부]	‘쏘다’(射)	cumebu
[추무찰]	‘오래된’(舊的)	cumucac
[치다]	‘가지’(枝)	cida

(3) 마찰음 : /s/, /x/, /h/

세딕어의 마찰음은 /s/, /x/, /h/ 이상 세 가지가 있다. 세 가지 자음 모두 머리자음과 꼬리자음에 다 쓰인다. 이에 대하여 李壬癸(1991)는 “c와 같은 발음부위의 무성 마찰음 s가 있다. c와 s는 모두 前高 모음 i의 앞에서 구개음화 된다x는 k와 같은 발음부위의 무성 마찰음이다. 咽喉에서 발음되는 무성 마찰음이 있는 데 표기의 편의성을 위하여 h로 대체한다.”⁶⁾라는 설명을 덧붙이고 있고, 張永利(2000)는 “세딕어는 泰雅語群의 기타 언어와 마찬가지로, 타이완 남도어족의 다른 언어에는 드문 설근-무성-마찰음 x와 咽頭 무성 마찰음 h의 대비가 있다. maxan(十)과 mahan(마시다)가 그러한 예이다.”⁷⁾라고 설명하고 있다. 原民會(2005)는 /h/에

4) “ts는舌尖面混合清塞擦音, 部位比t, d稍後, 比英語的 [tʃ] 稍前. 爲避免誤爲輔音群, 記作c. c在字首字中不送氣, 字尾送氣.”

5) “c是一個舌尖和舌面之間의清擦音, 發音部位比 t, d稍後, 比英語的 [tʃ] 稍前.”

6) “與c同部位有一個清擦音s. c與s都會在前高音i之前顎化. x爲與k同部位的清擦音. 咽部有清擦音, 爲了書寫方便起見, 用h記號代替.”

대하여 국제음성기호 h(voiceless pharyngeal fricative sound)에 대응시키고 있다.

자음 /s/에 대한 한글 서사는 그리 문제 될 것이 없다. /ㅅ/로 대응시키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x/와 /h/을 한글로 각각 달리 서사할 방도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즉, 음성학적으로 유사성이 있는 자모로 각각 달리 대응시킬 방도가 없다. 따라서 다음 두 가지 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1)안: 독립음소가 아니라 변이음으로 보는 것, 2)안: /h/는 /ㅎ/로 서사하고 /x/는 유희(遊休) 자모 가운데 /ㅈ/으로 대응시키는 것. 2)안은 ‘열’(十)을 뜻하는 maxan을 [미탄]으로, ‘마시다’는 뜻의 mahan은 [미한]으로 서사하여 그 두 음소를 구분하지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유희(遊休) 자모 활용 방안은 혼란을 야기시키는 단점이 있으므로 가급적 적게 쓰는 것이 좋다. 張永利(2000)가 /x/와 /h/를 별개의 음소로 보기 위하여 제시한 준동음어가 있기는 하지만 그러한 예가 흔하지 않고, 237개 기본 어휘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h/는 51회 출현하고, /x/ 13회 출현하며, 특히 첫음절의 머리자음에 많이 쓰이는 /h/에 비하여 /x/은 오직 둘째 음절에만 쓰이고 있기에 /h/의 변이음으로 간주하여 둘 다 /ㅎ/로 서사하는 1)안을 채택하기로 한다.⁸⁾ 세딕어 마찰음의 한글 서사를 예시하자면 다음과 같다.

① /s/ → /ㅅ/

[사리]	‘토란’(芋頭)	sari
[사마]	‘채소’(蔬菜)	sama
[세딕]	‘사람’(人)	seediq

② /h/ → /ㅎ/

[헤이이]	‘고기’(肉)	heyi
[후낫]	‘아래’(下面)	hunac
[후링]	‘개’(狗)	huling

7) “賽德克語和其他泰雅語群的語言一樣，都有其他台灣南島語所小見的舌根清擦音x和咽頭清擦音h的對比，maxan(十)vs. mahan(喝，處所焦點)。”

8) 한국어 한글 서사에도 그 둘이 동일하게 서사되고 있다. 즉 변이음으로 간주되고 있다. 헤엄(heam), 하마(hama) 와 흙(xwik), 흑산도(xuiksando)에서 보는 바와 같이(참고 이호영 1996, 87-87), [h]와 [x]가 모두 /ㅎ/으로 서사되고 있다.

※ 참고 /x/ → /ㅎ⁹⁾

[마한]	‘열’(十)	maxan
[레히]	‘죽순’(竹筍)	lexi

(4) 설측음과 탄설음 : /l/, /r/

李壬癸(1991), 張永利(2000), 原民會(2005) 모두 설측음 /l/과 탄설음/r/을 각각 독립된 음소로 설정하고 있다. 이 두 자음은 음절의 첫머리와 말미 모두에 쓰이고 있다. 李壬癸(1991)는 “l은 t, d, n와 같은 발음부위의 설측 마찰음 [ɸ]으로 발음된다. l이 字尾에 출현될 때 젊은 사람들은 모두 [n]으로 발음하고, 노년층은 변함없이 [ɸ]로 발음하는 예가 흔히 있다. r의 발음부위는 t, d, n, l에 비하여 약간 뒤쪽의 탄설음이다¹⁰⁾”라는 설명을 덧붙이고 있고, 張永利(2000)는 “세덕어의 r과 l은 혼동하기 매우 쉬운 음이다. 이 두 자음은 발음부위가 서로 같다. 단지 발음방법만 다를 뿐이다. l은 설측음(lateral)인데 비하여, r은 탄설음(flap)으로 국제음성부호 [ɾ]에 해당된다. 타자의 편리를 위하여 일률적으로 /r/로 대체한다. r과 l이 대비되는 예로는 teru‘三’와 telu‘대륙사람’(外省人)이 있다¹¹⁾.”라고 하여 각각 독립 음소로 보고 있다.

/l/과 /r/을 한글 자모로는 각각 달리 서사할 방법이 없다. 이에 대한 서사 방안을 다음 두 가지로 상정해 볼 수 있다. 1)안: 각각 독립된 음소인 것은 사실이나 준동음어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하나의 음소로 간주하여 모두 /ㄹ/로 서사하자는 방안. 2)안: /l/은 /ㄹ/로 서사하고 /r/은 유희(遊休) 자모를 활용하여 /ㄹ/으로 서사하자는 방안. 2)안은 teru는 [테루]로 telu는 [테루]로 각기 달리 서사하자는 것이다. 이것은 두 음소를 구분하는 장점은 있으나, 음성학적 유사성 원칙에 위배 되므로 큰 혼동을 빚을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본고는 1)안

9) 237개 기본어휘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첫음절의 머리자음으로 출현되는 것은 없으며, 두 번째 음절의 머리자음으로 쓰인 것이 단지 이 두 개의 단어에만 보이고 있다.

10) “l是和t, d, n同部位的邊擦音 [ɸ]。l在字尾時, 年輕人都讀成[n],老人則往往還保持讀 [ɸ]。r是一個比t, d, n, l發音部位爲後的舌尖拍音。”

11) “賽德克語的r和l是兩個很容易混淆的音, 這兩個音發音部位相同, 但發音方法不同。l是一個〈邊音〉(lateral), r則是一個〈拍音〉(flap), 國際音標記爲[ɾ], 這裡我們爲了打字方便, 一律用/r/代替。底下是一個r和l的對比的例子: teru‘三’相對於telu‘外省人’。”

을 채택하여 모두 /ㄹ/로 서사하기로 한다. 張永利(2000)가 제시한 준동음어 teru‘三’와 telu‘대륙사람’(外省人)은 언어 층차가 다르다. 전자는 고유의 세덕어이고, 후자는 차용 세덕어이다. 즉 ‘大陸’[dalu]란 현대 중국어를 음역한 차용어이다. 237개 기본어휘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더 이상의 준동음어가 없었다. 그리고 세덕어의 어휘는 단음절 단어는 극소수이기에 단음절 단어 중에서 준동음어가 있을 가능성은 전무하다. 이와 같은 점으로 볼 때 그 두 음소를 변이음 관계로 보고 동일하게 서사하더라도¹²⁾ 의미 변별의 혼동이 야기될 문제점은 없을 것 같다. 이에 대한 한글 서사를 예시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

/l/ → /ㄹ/			
[라끼]	‘어린이’(小孩)	laqi	
[라링]	‘갈고리’(鉤)	laling	
[루곳]	‘의복’(衣服)	lukus	
※ /r/ → /ㄹ/			
[라삿]	‘박쥐’(飛鼠)	rapic	
[레부]	‘오줌’(尿)	rebu	
[루디]	‘더러운’(髒的)	rudi	

(5) 비음 : /m/, /n/, /ng/

세덕어의 비음은 3종이 있다. 이에 대하여 李壬癸(1991)은 “m, n, ŋ은 각각 p, t, k와 같은 발음부위의 비음이다. m이 字尾에 출현되는 예는 없다. ŋ은 표기의 편의를 위하여 ng로 쓴다.”¹³⁾는 설명을 덧붙이고 있고, 張永利(2000)는 “비음 m·n이 語頭에 출현할 때 해당 음절이 약하게 읽힌다. 그 뒤에 오는 음절의 자음이 각각 발음부위가 다른 파열음 p·b·t·d가 올 때 m·n의 뒤에 있는 모음이 때로는 소실되기도 하여 성절음의 m·n을 형성한다.”¹⁴⁾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예

12) 본고에서 1)안을 채택한 또 하나의 결정적인 이유는 한국어의 한글 서사 체계에서도 [l]과 [r]이 동일하게 /ㄹ/로 서사되고 있다는 점이다. 나라[nara], 우리[uri] 그리고 살[sal], 발달[baltal]이 그러한 예이다(참고 이호영 1996, 89-91).

13) “m, n, ŋ 分別是 p, t, k 同部位的鼻音。語言上 m 不出現字尾。爲書寫方面，可以記作 ng。”

14) “鼻音 m, n 在字首而且該音節不讀重音、其次一音節的輔音分別爲同部位的塞音 p, b,

를 제시하고 있다.

mupitu [mpitu] ‘七’,	mubulawa [mbulawa] ‘녹색’
nuteni [nteni] ‘만나다’,	nudeheya [ndeheya] ‘그들의’

위에 예 가운데 원래의 음은 한글 서사가 가능하지만, 변화된 후의 음은 한글 서사가 불가능하다. 어두에 복자음이 있기 때문이다. 복자음 문제에 대해서는 후에 상세히 검토해 보기로 하겠다. /m/과 /n/에 대하여는 음성학적 유사성 원칙과 현용 한글 자모를 우선적으로 활용한다는 두 가지 원칙에 의거하여 각각 /ㅁ/과 /ㄴ/으로 서사하기로 한다. 머리자음에 쓰이는 /ng/을 현용 한글 자모 /ㅇ/로 서사하면 모음으로 시작되는 음절과 혼동이 생기게 마련이다. 따라서 이러한 혼란을 피하자면 훈민정음 자모 /ㅇ/를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 세 자음에 대한 한글 서사를 예시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

① /m/ → /ㅁ/

[마루]	‘좋은’(好的)	malu
[마루이]	‘사다’(買)	maruy
[마하]	‘가다’(去)	maha

② /n/ → /ㄴ/

[나깡]	‘나쁜’(壞的)	naqah
[누놓]	‘젖’(乳房)	nunuh
[니이]	‘이것’(這個)	nii

③ /ng/ → /ㅇ/

[아랏]	‘오른쪽’(右邊)	ngarac
[이로]	‘버섯’(香菇)	ngiro
[이오]	‘고양이’(貓)	ngio

(6) 반자음

세딕어에 대한 한글 서사를 입안함에 있어서 약간의 걸림돌이 되는 것은 반자음에 대한 처리 문제이다. 세딕어 반자음에 대하여 李壬癸(1991)는 “반자음은 두 개

t, d時, m, n後面的原因往往會丟掉, 形成成音節的m, n.”

가 있다. 국제음성기호에 의거하자면 마땅히 j, w로 표기 하여야 하는데, 편의상 영어 표기 관습에 따라 y, w라 표기 한다. ay, aw가 語尾에 출현될 때 南豐方言은 각각 [ɛ:], [ɔ:]로 발음한다. ɛ, ɔ는 e, o에 비하여 약간 낮은 모음이다.”¹⁵⁾라고 하였고, 張永利(2000)는 “세딕어는 泰雅語群의 기타 언어와 마찬가지로, 타이완 남도어족의 다른 언어에는 없는 5 개 모음 체계를 지니고 있다. 그 가운데 e와 o는 매우 독특한 특색을 지니고 있다. 오로지 語尾에만 등장되는 e와 o는 통상 ay와 aw가 변한 것이다.”¹⁶⁾라고 하였다. 237개 기본 어휘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반자음 /w/는 語頭에서는 wa-만 보이고 있고, 語尾에도 출현된다. 이에 비하여 /y/는 어두에서는 yi, yu, ye, ya 이상 4종 형식으로 쓰이고 있고, 語尾에도 출현된다. 이 반자음에 대하여 하나의 한글 자모로 대응시켜 서사할 수 없다. 한글 자모에는 반자음이 설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하는 수 없이 변칙을 쓸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1) 각각 성질성을 부여하여 /우/, /이/로 서사하는 방안, 2) 語尾에 출현되는 경우만 성질성으로 부여하고, 어두에서 모음과 더불어 쓰이는 경우에는 모음과 더불어 하나의 음절로 서사하는 방안, 즉 wa[와], yi[이], yu[유], ye[예], ya[야]로 서사하는 방안을 구상해 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1)안에 따라 각각 하나의 음절로 서사하고, 뒤에 모음이 따를 때에는 2음절로 서사하는 방안을 취하고자 한다. 이를 테면, wa[우아], yi[이이], yu[이우], ye[이에], ya[이아]로 서사하기로 한다. 2)안은 세딕어의 모음 체계에 이중모음을 설정해야 하고, 반자음을 모음과 동일시해야 하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 시키는 문제점이 있어 1)안을 채택하였다. 세딕어 반자음 2종에 대한 한글 서사를 예시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

① /w/ → /우/

[우아레]	‘실’(線)	wale
[우아루]	‘벌’(蜜蜂)	walu
[우아소]	‘입’(葉)	waso

15) “半元音有兩個，依國際音標應記作j, w。爲書寫方便，可循英語的習慣記作y, w。a y, aw出現在字尾時，南豐方言分別讀作[ɛ:], [ɔ:]。ɛ, ɔ 是位置比e, o略低的元音。”

16) “賽德克語和其他泰雅語群的語言一樣，都有其他台灣南島語所沒有的五元音系統。同時具有e和o是一大特色，不過出現在字尾的e和o通常是ay和aw變來的，詳細情形在音韻規則部分會討論。”

② /y/ → /이/

[이아꾸]	‘나’(我)	yaku
[이아무]	‘너희들’(你們)	yamu
[이아미]	‘우리’(我們)	yami

2. 꼬리자음의 서사

한 음절의 말미 또는 끝 음절의 말미에 등장되는 꼬리자음에 대하여 李壬癸(1991)는 언급이 없고, 張永利(2000)는 총 11개로 집계되어 있다. 이에 대한 음운론적 및 음성학적 분석은 머리자음과 동일하다. 로마자 표기는 동일하지만 한글 서사가 머리자음과 약간 달라진 것으로는 /-q/ → /-ㄱ/17)와 /-ng/ → /-ㅇ/이다. 이를 제외한 꼬리자음과 반자음 2종은 머리자음과 동일하게 서사하기로 한다. 머리자음에서 처럼 /-l/과 /-r/을 동일하게 서사하기로 한다. 이에 따라 한글 서사에 쓰인 꼬리자음은 하나가 줄어든 10개가 되었다. 이에 대한 한글 서사를 예시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

① /-k/ → /-ㄱ/

[메륙]	‘닫다’(關上)	meluk
[루무베륙]	‘굽다’(烤)	lumubeluk
[뚜게이얌]	‘트름’(打嗝)	tugeyak

② /-q/ → /-ㄱ/

[도릭]	‘눈’(眼睛)	doriq
[꾸우악]	‘입’(嘴)	quwaq
[다륙]	‘지방’(油脂)	daruq

③ /-c/ → /-ㅈ/

[미릿]	‘양’(羊)	miric
[무리훔]	‘다람쥐’(松鼠)	murihuc

17) 꼬리자음 /-q/와 /-k/를 하나로 합칠 수 없는 것은 다음과 같은 준동음어가 있음을 발견하였기 때문이다. [메륙] ‘날 것’(生的) meluq, / [메륙] ‘닫다’(關上) meluk. 따라서 /-ㄱ/과 /-ㄱ/으로 구분하여 서사하기로 한다.

- | | | | |
|---|---------------|------------------|-----------|
| | [라삿] | ‘박쥐’(飛鼠) | rapic |
| ④ | /-s/ → /-ㅅ/ | | |
| | [시붓] | ‘사탕수수’(甘蔗) | sibus |
| | [빠잇] | ‘적’(敵人) | pais |
| | [베랏] | ‘쌀’(米) | beras |
| ⑤ | /-x/ → /-ㅎ/ | | |
| | [꾸무비룽] | ‘빌리다’(借) | kumubarux |
| | [꾸이울] | ‘비’(雨) | quyux |
| | [꾸추룽] | ‘물고기’(魚) | qucurux |
| | ※ /-h/ → /-ㅎ/ | | |
| | [꾸마굴] | ‘잡다’(抓) | kumaguh |
| | [꾸누룽] | ‘옥상’(屋頂) | kunuruh |
| | [나깡] | ‘나쁜’(壞的) | naqah |
| ⑥ | /-l/ → /-ㄹ/ | 237개 중에 3개밖에 없음. | |
| | [부기홀] | ‘바람’(風) | bugihul |
| | [까뽀] | ‘함정’(陷阱) | qapil |
| | [가밀] | ‘뿌리’(根) | gamil |
| | ※ /r/ → /-ㄹ/ | 237개 중에 2개밖에 없음 | |
| | [비낄] | ‘갑상선종’(甲狀腺腫) | biqir |
| | [따꼴] | ‘넘어지다’(跌倒) | takur |
| ⑦ | /-n/ → /-ㄴ/ | | |
| | [깨만] | ‘밤’(夜晚) | keeman |
| | [마한] | ‘열’(十) | maxan |
| | [끼안] | ‘하나’(一) | kingan |
| ⑧ | /-ng/ → /-ㅇ/ | | |
| | [리링] | ‘갈고리’(鉤) | laling |
| | [다링] | ‘가까운’(近的) | daling |
| | [꿩] | ‘어두운’(暗的) | kuung |

⑨ /-w/ → /우/18)

[에루우] ‘길’(路) eluw

⑩ /-y/ → /이/

[마루이] ‘사다’(買) maruy

[루마우이] ‘수영하다’(游) lumanguy

[구메구이] ‘훔치다’(偷) gumeeguy

3. 모음의 서사

(1) 단모음 : /i/, /u/, /e/, /o/, /a/

세딕어의 모음은 수가 적고, 이중모음도 없어 이에 대한 한글 서사 적합도는 100%이다. 李壬癸(1991)는 “세 개의 차방언들은 모두 i, u, o, a 이상 4개 모음이 있다. 合作、春陽 방언은 모음 ə가 있는데, 南豐 방언에는 없다. 合作과 春陽 방언의 경우 강세 음절에서 발음되는 ə가 南豐방언에서는 e로 발음한다. 合作과 春陽 방언의 경우 강세 음절 앞에서 발음되는 ə가 南豐방언에서는 u로 발음한다. 모음체계의 평형성을 고려하여 5개 모음 체계에 입각하여 e를 음소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i, u, e, o, a 5개 모음 체계를 설정하기로 한다.”19)는 설명을 덧붙이고 있고, 張永利(2000)는 “세딕어는 泰雅語群의 기타 언어와 마찬가지로, 타이완 남도어족의 다른 언어에는 없는 5개 모음 체계를 지니고 있다. 그 가운데 e와 o는 매우 특이한 특색을 지니고 있다. 오로지 語尾에만 등장되는 e와 o는 통상 ay와 aw가 변한 것이다.”20)

세딕어 단모음 5종에 대한 한글 서사는 각각 독립음절일 때와 다른 자음과 더불어

18) 237개 기본어휘를 대상으로 조사해본 결과 /-w/가 꼬리음으로 쓰인 예는 이것 하나밖에 없었다.

19) “三個次方言都有i、u、o、a四個元音。合作、春陽有ə元音，而南豐沒有。相當於合作、春陽重音節的ə，南豐讀作e；合作，春陽重音節前讀作ə元音，南豐都讀u。因為考慮到元音系統的平衡性，我們認為第五個元音音位以e為妥當，所以元音系統可定為i、u、e、o、a五個元音。”

20) “賽德克語和其他泰雅語群的語言一樣，都有其他台灣南島語所沒有的五元音系統。同時具有e和o是一大特色，不過出現在字尾的e和o通常是ay和aw變來的，詳細情形在音韻規則部分會討論。”

어 쓰일 때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i, u, e, o, a가 앞에 자음과 더불어 쓰일 때에는 각각 /l/, /ɾ/, /k/, /ɳ/, /t/로, 독립 음절일 때에는 각각 /이/, /우/, /에/, /오/, /아/로 서사하기로 한다. 이에 대한 한글 서사를 예시하자면 다음과 같다.

- ① /i/ → /l/
- | | | |
|--------|----------|---------|
| [수우아이] | ‘동생’(弟妹) | suwai |
| [수이띠] | ‘뱀장어’(鰻) | sungiti |
| [아리] | ‘대낮’(白天) | ali |
- /i/ → /이/
- | | | |
|------|---------|------|
| [이닷] | ‘달’(月亮) | idas |
| [이마] | ‘누구’(誰) | ima |
| [이수] | ‘너’(你) | isu |
- ② /u/ → /ɾ/²¹⁾
- | | | |
|------|-----------|------|
| [세루] | ‘절굿공이’(杵) | selu |
| [떼루] | ‘셋’(三) | teru |
| [수두] | ‘풀’(草) | sudu |
- ③ /e/ → /k/
- | | | |
|-------|---------|---------|
| [네뵙] | ‘밭’(田) | neepah |
| [꾸네딛] | ‘긴’(長的) | qunedis |
| [깨만] | ‘밤’(夜晩) | keeman |
- /e/ → /에/ 이하 두 개만 있음
- | | | |
|-------|----------|------|
| [에루우] | ‘길’(路) | eluw |
| [에뵙] | ‘얇은’(薄的) | epuh |
- ④ /o/ → /ɳ/
- | | | |
|------|----------|-------|
| [꼬릿] | ‘들쥐’(田鼠) | qolic |
| [꼬미] | ‘바늘’(針) | qomi |
| [꼬릿] | ‘들쥐’(田鼠) | qolic |

21) /u/ → /우/에 해당되는 어휘는 없다. 즉 기본어휘 가운데 /u/가 첫음절에 출현하는 예는 없다.

⑤ /a/ → /ㅏ/²²⁾

[마한]	‘열’(十)	maxan
[리마]	‘다섯’(五)	rima
[다하]	‘둘’(二)	daha

/a/ → /아/

[아랑]	‘마을’(村莊, 部落)	alang
[아룽]	‘천산갑’(穿山甲)	arung
[아리]	‘대낮’(白天)	ali

(2) 장모음 문제

세딕어 한글 서사에 있어서 장모음 문제가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먼저 張永利(2000)의 설명을 들어보자. “세딕어의 음절구조에는 ‘장모음’(long vowel)이 없다. 표면상으로는 세딕어에 장모음이 語中과 語尾에 출현될 수 있다(語頭에는 출현될 수 없음). 그러나 의미 변별 작용은 하지 아니하므로 진정한 의미의 장모음은 아닌 셈이다. 어미에 출현되는 장모음은 모두 변화를 거친 것이다. 이를테면 rebuu(혹은 rebu: ‘오줌’)은 자음(g) 탈락과 모음 보상(u)에 따른 변화 결과인데, 이것은 동사의 명령 형식으로 볼 수 있다.”²³⁾

그리고, 변화를 거치지 아니한 장모음의 예도 있다. 즉, nii‘이것’(這), huun‘자루’(杓子), seediq‘세딕, 사람’, maanu‘무엇’ 같이 장모음이 중복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이에 대하여 張永利(2000)는 “이들 장모음은 의미 변별 기능을 가지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ni, hun, sediq, manu가 nii, huun, seediq, maanu와 대립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것을 음절구조의 장모음으로 볼 수 없다.”²⁴⁾고 단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장모음 표기를 위한 별도의 구별부호(:)를 사용하지 않기로 한다.

22) /o/ → /오/에 해당되는 어휘도 없다.

23) “賽德克語의音節結構裡沒有〈長元音〉(long vowel)。表面上看起來，賽德克語의長元音雖然可以出現在字中和字尾(不能出現在字首)，但都不具辨義作用，所以不是眞正的長元音。出現在字尾的長元音，都是經過變化來的，例如rebuu(或寫成 rebu: ‘尿’)是經過輔音脫落(g脫落)和元音補償(u補位)得來的，這一點可由他的命令式看出來。”

24) “由於這些長元音也不具辨義作用，即沒有ni, hun, sediq, manu和nii, huun, seediq, maanu 形成對比的例子，因此也不能視爲音節結構裡的長元音。”

4. 음절 구조와 복자음 문제

(1) 음절 구조의 종류 및 서사

문자가 없는 무문 언어에 대한 한글 서사 방안을 탐구할 때에는 음절 구조에 대한 검토가 면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풀어쓰기에 적합한 알파벳과 달리 한글은 음절을 단위로 모아쓰기에 적합하도록 고안되었기 때문에 모아쓰기에 적합한 음절구조를 지니고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천만다행하게도 세덕어의 음절구조는 한글 서사에 매우 적합한 양상을 지니고 있다. 張永利(2000, 44-46)의 조사 보고에 따르면 세덕어의 상용 어휘들은 통상 CVCVCV의 복음절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기본 음절 구조는 이하 4 종이라고 한다. 4종 음절구조별 한글 서사를 예시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

- ① CVC : buc'뻬' [뿃], lukus'웃' [루웃]
- ② CV : tama'아버지' [따마]
- ③ VC : un'~이다' [운]
- ④ V : a '감탄사' [아], maanu '무엇' [만우]²⁵⁾

(2) 복자음 문제

복자음은 한글 서사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참으로 중차대한 문제다. 어두에 복자음이 등장한다면 한글 서사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한글은 음절을 단위로 모아쓰기를 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李壬癸(1991)와 張永利(2000)에 제시된 음운 목록에는 복자음이 없어 필자로 하여금 안도의 숨을 내쉬게 하였다. 그런데 李壬癸(1991)의 다음과 같은 보충 설명은 간담을 서늘하게 하였다.

“강세는 뒤에서 두 번째 음절에 위치한다. 강세 음절의 앞에 오는 모음은 약화되거나 소실되기도 함에 따라 語頭에 복자음이 형성되기도 한다. 자음 사이에서 약화

25) 張永利(2000, 44-46)가 음절구조 V형에 a '감탄사'를 예시한 것은 문제가 없지만, maanu'무엇'을 예시한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 張永利(2000)는 maanu를 [CV+CV]가 아니라 [CVC+V]로 보았기 때문이라 생각되어 [마누]가 아니라 [만우]라 서사하였다.

된 모음은 표기할 필요가 없다. 강세 음절에 자음이 없거나 자음이 h인 경우에는 강세 음절 앞의 모음이 강세 음절이 모음과 동화되기도 한다.²⁶⁾

강세 음절의 앞에 오는 모음은 약화되거나 소실되기도 함에 따라 語頭에 복자음이 형성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李壬癸(1991)는 각 음소별 어휘를 4~5개 씩 예시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복자음으로 표기되어 있는 예가 대단히 많다. 18종 자음 가운데 /q/와 /w/만 없고, 16종 자음모두가 복자음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예시되어 있다. 대표적인 것만 예로 들어 보자면 다음과 같다.

/p/ speraq ‘풀’(草)	/t/ btunux ‘돌’(石頭)
/k/ lkeruq ‘재’(灰)	/b/ bruwa ‘우레’(雷)
/d/ qdiraw ‘매’(鷹)	/g/ tgelaq ‘폭포’(瀑布)
/c/ mcehak ‘핥다’(舐)	/s/ dremus ‘이슬’(露水)
/x/ skxeli ‘사랑’(愛)	/h/ tkulih ‘야생닭’(田雞)
/m/ gmeya ‘띠’(茅草)	/n/ qbeheni ‘새’(鳥)
/ng/ pngerah ‘별’(星)	/l/ lcilung ‘호수’(湖)
/r/ bgihur ‘바람’(風)	/y/ mheyuw ‘서다’(站)

위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3음절 어휘는 첫음절의 모음이 소실됨으로써 어두에 복자음이 있는 것으로 표기되어 있다. 이러한 현상이 확실하다면 세딕어를 한글 자모로 서사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그래서 크게 낙담 하고 있던 중에 張永利(2000)의 다음과 같은 보충 설명이 희망의 불씨를 지펴주었다.

“세딕어의 음절 구조에는 ‘복자음’(consonant cluster, 영어의 spy, gospel, grasp 같은 예)이 없다. 표면상으로는 CCV가 있지만, 그러한 예들은 통상 비강세 음절의 모음이 생략된 결과 이다.”²⁷⁾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예를 들고 있다.

26) “重音都在倒數第二音節。重音之前的音節，元音常弱化消失，形成字首的輔音群。輔音之間的弱化元音不必記出。如果重音節沒有輔音或輔音爲h，則重音節之前的元音會同化於重音節的元音。”

27) 賽德克語的音節結構裡沒有〈輔音群〉(consonant cluster)(比較英語的例子如 spy, gospel, grasp)，雖然表面上有CCV，但這些通常是非重音元音省略的結果。”

- a. buneebu → bneebu ‘때리다’
 b. qita-i → qtai ‘보라!’

그리고 그는 “이른바 음절구조란 것은 일반적으로 基底 형식을 말하는 것이지, 變化 형식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뿐만 아니라 bn·qt 등의 복자음은 語頭에만 등장되지, 영어의 복자음 같이 語頭나 語中, 語尾에 자유롭게 출현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세딕어의 음절구조에는 복자음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²⁸⁾”라는 설명을 덧붙여 놓았다.

복자음의 존재를 인정하지 아니한 張永利(2000)도 세딕어의 기본 어휘를 예시 하면서 다음과 같이 복자음으로 표기된 것이 5 개나 있다. 예) srumao ‘등나무’ (籐), mtlux ‘뜨거운’ (熱的), rqenux ‘사슴’ (鹿), qbheni ‘새’ (鳥), lngedi ‘파리’ (蒼蠅). 이를 통하여 보자면 3음절 어휘의 첫음절 모음이 약화 또는 소실됨으로써 복자음 어휘가 앞으로 더 많이 발견될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는 그것을 무시해도 좋을 만큼 극소수이기에 본고에서도 복자음 문제를 더 이상 고려하지 않기로 한다.

Ⅲ. 세딕어 한글 서사법(안)

한 언어의 서사 체계를 수립함에 있어서, 음운은 간단할수록 좋다. 의미 변별에 문제가 없는 한, 정밀 전사(narrow transcription)보다 간략 전사(broad transcription) 방식을 따르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러한 원칙에서 李壬癸(1991), 張永利(2000) 등이 제시한 세딕어 음운 체계를 최대한 간략화 함으로써 쉬운 한글 서사법(안)을 강구하게 되었다. 머리자음(15), 꼬리자음(10), 모음(5)으로 나누어 도식화하자면 다음과 같다.

28) 一般所謂的音節結構指的是形式，而不是變化形式。而且，bn、qt等輔音群只出現在字首，不像英語的輔音群那樣自由，字首，字中和字尾都可以出現，因此，我們認為賽德克語的音節結構裡沒有輔音群。”

〈표 1〉 세딕어 머리자음 한글 서사 체계

	순음	설침음	설근음	후음
파열음	p /ㅍ/	t /ㅌ/	k(q) /ㄱ/	
	b /ㅂ/	d /ㄷ/	g /ㄱ/	
파찰음		c /ㅈ/		
마찰음		s /ㅅ/		(x)h /ㅎ/
설측음		l(r) /ㄹ/		
비 음	m /ㅁ/	n /ㄴ/	ng /ㅇ/	
반자음	w /우/	y /이/		

〈표2〉 세딕어 꼬리자음 한글 서사 체계

	순음	설침음	설근음	후음
파열음			k /ㄱ/ q /ㄱ/	
파찰음		c /ㅈ/		
마찰음		s /ㅅ/		(x)h /ㅎ/
설측음		l(r) /ㄹ/		
비 음		n /ㄴ/	ng /ㅇ/	
반자음	w /우/	y /이/		

〈표3〉 세딕어 모음 한글 서사 체계

	前	央	後
高	i /ㅣ/(이)		u /ㅜ/(우)
中	e /ㅔ/(에)		o /ㅛ/(오)
低		a /ㅏ/(아)	

IV. 세덕어 한글 서사 예시

1. 기본 어휘(237)

아래에 예시된 기본어휘 237개는 張永利(2000)가 로마자로 표기한 것을 한글 서사법(안)을 시범적으로 적용해본 것이다. 로마자 표기에서 모음이 중복되어 있는 장모음은 변별 자질이 아니라 잉여적 자질이므로 따로 구별 표시(:)를 하지 않았다. 수사(數詞)와 일반 기본 어휘로 나누고, 일반 어휘는 한글 자모순으로 배열하였다.

(1) 수사

[까안]	‘하나’(一)	kingan
[다하]	‘둘’(二)	daha
[떼루]	‘셋’(三)	teru
[세랏]	‘넷’(四)	sepac
[리마]	‘다섯’(五)	rima
[무마-떼루]	‘여섯’(六)	uma-teru
[무베루]	‘일곱’(七)	mupitu
[무마-세랏]	‘여덟’(八)	muma-sepac
[무아리]	‘아홉’(九)	mungari
[마한]	‘열’(十)	maxan
[다하 꾸베꾸이]	‘일백’(一百)	daha kubekuy

(2) 일반 기본 어휘

[가가]	‘그것’(那個)	gaga
[가밀]	‘뿌리’(根)	gamil
[구리간]	‘꿩’(山雞, 雉)	gulaqan
[구미두]	‘치다’(拍)	gumatuk
[구메구이]	‘훔치다’(偷)	gumeeguy
[까랏]	‘하늘’(天)	karac
[카리]	‘말’(語言, 話)	kari
[까벨]	‘함정’(陷阱)	qapil
[깨만]	‘밤’(夜晩)	keeman
[꼬릿]	‘들쥐’(田鼠)	qolic
[꼬미]	‘바늘’(針)	qomi
[꼬릿]	‘들쥐’(田鼠)	qolic
[꾸네딧]	‘긴’(長的)	qunedis
[꾸누룰]	‘옥상’(屋頂)	kunuruh
[꾸두룩]	‘이마’(額)	kuduruk

[꾸띠]	‘논곱’(屎)	quti
[꾸로빠락]	‘다리’(小腿)	kuroparaq
[꾸루리]	‘표류하다’(漂流)	qululi
[꾸루만]	‘팔꿈치’(手肘)	kurumaan
[꾸룩]	‘거북’(龜)	kuluk
[꾸미굴]	‘잡다’(抓)	kumaguh
[꾸마리]	‘과다’(挖)	kumari
[꾸마이얌]	‘자르다’(切)	kumayak
[꾸메기]	‘춤’(跳舞)	kumeeki
[꾸무비룰]	‘빌리다’(借)	kumubarux
[꾸미이웃]	‘물다’(咬)	qumiyuc
[꾸부릿]	‘잿더미’(灰燼)	qubulic
[꾸부수란]	‘형, 언니’(兄弟)	qubusuran
[꾸우악]	‘입’(嘴)	quwaq
[꾸]	‘어두운’(暗的)	kuung
[꾸이]	‘벌레’(蟲)	kui
[꾸이뿌레꼬]		kuipureko
[꾸이우]	‘뱀’(蛇)	quyu
[꾸이울]	‘비’(雨)	quyux
[꾸추룰]	‘물고기’(魚)	qucurux
[꾸후니]	‘나무’(樹木)	quhuni
[꾸후니]	‘목재’(木柴)	quhuni
[끼따]	‘보다’(看)	qita
[나갈]	‘나쁜’(壞的)	naqah
[네밭]	‘밭’(田)	neepah
[누농]	‘젖’(乳房)	nunuh
[누부이앗]	‘배’(肚子, 腹)	nubuyas
[니이]	‘이것’(這個)	nii
[다라]	‘피’(血)	dara
[다룩]	‘지방’(油脂)	daruq
[다링]	‘가까운’(近的)	daling
[다랏]	‘반찬’(菜)	damac
[다이]	‘친구’(朋友)	dangi

[대헤란]	‘땅’(地)	dehelan	[매룩]	‘날 것’(生的)	meluq
[대헤이아]	‘먼’(遠的)	deheya	[매룩]	‘닫다’(關上)	meluk
[도꺼랏]	‘얼굴’(臉)	doqeras	[메이얏]	‘오다’(來)	meyah
[도릭]	‘눈’(眼睛)	doriq	[무이얏]	‘노래하다’(唱)	muuyas
[두미딘]	‘안다’(抱)	dumidin	[무까다]	‘던지다’(擲)	muqada
[두홍]	‘절구’(臼)	duhung	[무개딘]	‘여자’(女人)	muqedin
[따꼴]	‘넘어지다’(跌倒)	takur	[무개라]	‘알다’(知道)	mukela
[따끼]	‘잠자다’(睡)	taqi	[무꾸개사]	‘걷다’(走)	mukukesa
[따라]	‘기다리다’(等候)	tara	[무꾸네둥]	‘두꺼운’(厚的)	mukuneduh
[따마]	‘아버지’(父親)	tama	[무대구]	‘마른’(乾的)	mudegu
[또마비학]	‘마음’(心)	tomabahaq	[무딱]	‘토하다’(嘔吐)	mutaq
[뚜게이얏]	‘트름’(打嗝)	tugeyak	[무떼이]	‘배부른’(飽的)	mutengi
[뚜구레잉]	‘숨은’(藏)	tuguleing	[무리훅]	‘다람쥐’(松鼠)	murihuc
[뚜끼둥]	‘소나무’(松樹)	tuqilung	[무바향]	‘듣다’(聽)	mubahang
[뚜눌]	‘머리’(頭)	tunux	[무빠가]	‘질름발이’(鼓脚)	mupika
[뚜레웅]	‘앉다’(坐)	tureung	[무새꾸이]	‘차가운’(冷的)	musekuy
[뚜룩]	‘침’(口水)	turuq	[무수우얏]	‘하품하다’	musuwak
[달리랑]	‘달리다’(跑)	tumalang	[무후킨]	‘죽은 것’(死的)	muhuqin
[뚜무리마]	‘복욕하다’	tumurima	[무후릭]	‘젖은’(濕的)	muhuliq
[뚜미눈]	‘베를 짜다’(織布)	tuminun	[무후릿]	‘웃다’(笑)	muhulis
[뚜미이우]	‘가리키다’(指)	tumiyu	[무후은]	‘뾰족한’(尖的)	muhungun
[라끼]	‘어린이’(小孩)	laqi	[무힝]	‘코’(鼻子)	muhing
[라링]	‘갈고리’(鉤)	laling	[무우메은]	‘러블다’(黏的)	mungutengun
[리뽯]	‘박쥐’(飛鼠)	rapic	[미로]	‘뛰다’(跳)	miro
[레부]	‘오줌’(尿)	rebu	[미릿]	‘양’(羊)	miric
[레히]	‘죽순’(竹筍)	lexi	[미얏]	‘마시다’(喝)	mimah
[로둥]	‘닭’(雞)	rodux	[미이유]	‘불다’(吹)	miyuk
[루깁]	‘상처’(傷口)	lukah	[바가]	‘손’(手)	baga
[루개분]	‘위’(胃)	lukebun	[바락]	‘폐’(肺)	baraq
[루곳]	‘의복’(衣服)	lukus	[바로]	‘위’(上面)	baro
[루디]	‘더러운’(髒的)	rudi	[바롱]	‘계란’(蛋)	balung
[루마우얏]	‘열다’(打開)	lumawah	[바부이]	‘돼지’(家豬)	babuy
[루마우이]	‘수영하다’(游)	lumanguy	[베뽯]	‘짧은’(短的)	betuc
[루메오]	‘말하다’(說)	rumengo	[베랏]	‘쌀’(米)	beras
[루무게루이]	‘질하다’(篩)	rumugeruy	[베랏]	‘앞’(前面)	berah
[루무베룩]	‘굽다’(烤)	lumubeluk	[베헤낙]	‘활’(弓)	behehaq
[루문]	‘간’(肝)	rumun	[베헤닉]	‘활시위’(弓弦)	beheniq
[루미잇]	‘울다’(哭)	lumingis	[보이워]	‘멧돼지’(山豬)	boyak
[루뽯]	‘치아’(牙齒)	rupun	[부구랏]	‘새것’(新的)	bugurah
[루베]	‘자리’(蓆子)	lupi	[부기훅]	‘바람’(風)	bugihul
[루세노]	‘남자’(男人)	ruseno	[부꾸이]	‘뒤’(後面)	bukuy
[루에]	‘원숭이’(猴子)	runge	[부나꾸이]	‘모래’(砂)	bunaquy
[마루]	‘좋은’(好的)	malu	[부눌]	‘모자’(帽子)	bunuh
[마루이]	‘사다’(買)	maruy	[부디]	‘화살’(箭)	budi
[마하]	‘가다’(去)	maha	[부따간]	‘대나무’(竹子)	butakan
[마하다]	‘익은’(熟的)	mahada	[부떼락]	‘허벅지’(大腿)	buteraq
[마후]	‘세탁하다’	mahu	[부뚜눌]	‘돌’(石)	butunux
[마안]	‘들다’(拿)	mangan	[부루우아]	‘천둥’(打雷)	buruwa
[메에랏]	‘일하다’(做工)	meepah	[부리군]	‘팔다’(賣)	burigun
[메게]	‘주다’(給)	mege	[부부]	‘엄마’(媽媽)	bubu
[메간]	‘먹다’(吃)	mekan	[부사닉]	‘금기’(禁忌)	busaniq

[부수간]	‘취하다(醉)’	busukan	[수우아이]	‘동생(弟妹)’	suwai
[부이우우]	‘비둘기(鴿子)’	buyungu	[수이피]	‘뱀장어(鱧)’	sungiti
[비깅]	‘갑상선종’	biqir	[순라끼]	‘미끼(餌)’	sunraki
[비랏]	‘귀(耳朵)’	birac	[순부라안]	‘작살(長牙)’	sunbulangan
[비칙]	‘작은(小的)’	biciq	[시노]	‘술(酒)’	sino
[빠루]	‘크다(大的)’	paru	[시몯]	‘사탕수수(甘蔗)’	sibus
[빠뿌]	‘발(脚)’	papak	[아랑]	‘마을(部落)’	alang
[빠잇]	‘적(敵人)’	pais	[아릉]	‘천산갑(穿山甲)’	arung
[빠이에]	‘벼[稻(穀)]’	paye	[아리]	‘대낮(白天)’	ali
[빠홍]	‘담(膽)’	pahung	[에루우]	‘길(路)’	eluw
[뿌깨뿌]	‘더듬다(摸)’	pukepak	[에뿔]	‘얇은(薄的)’	epuh
[뿌닉]	‘불(火)’	puniq	[우아레]	‘실(線)’	wale
[뿌리부]	‘구름(雲)’	pulabu	[우아루]	‘벌(蜜蜂)’	walu
[뿌세허우]	‘호흡(呼吸)’	pusehengak	[우아소]	‘잎(葉)’	waso
[뿌후링]	‘사냥하다’	puhuling	[이닷]	‘달(月亮)’	idas
[뿌어랑]	‘별(星星)’	pungerah	[이마]	‘누구(誰)’	ima
[뿐버랑]	‘가래(痰)’	punberih	[이수]	‘너(你)’	isu
[사리]	‘토란(芋頭)’	sari	[이아꾸]	‘나(我)’	yaku
[사마]	‘채소(蔬菜)’	sama	[이아무]	‘너희들(你們)’	yamu
[사뿡]	‘방(屋子)’	sapah	[이아미]	‘우리(我們)’	yami
[세디]	‘사람(人)’	seediq	[이아이웅]	‘강(河流)’	yayung
[세루]	‘절굿공이(杵)’	selu	[체헤딘]	‘무거운(重的)’	cehedin
[수끼이아]	‘날다(飛)’	sukiya	[추메부]	‘쏘다(射)’	cumebu
[수누이옥]	‘밧줄(繩子)’	sunuyuq	[추무찾]	‘오래된(舊的)’	curmucac
[수두]	‘풀(草)’	sudu	[추미이유]	‘대답(回答)’	cumiyuk
[수로까]	‘가벼운(輕的)’	suloqa	[치다]	‘가지(枝)’	cida
[수루미닷]	‘칼(番刀)’	sulumadac	[헤이이]	‘고기(肉)’	heyi
[수미뽀]	‘자리갈다’	sumapo	[헤이이]	‘과실(果實)’	heyi
[수미잇]	‘깎다(縫)’	sumais	[후닛]	‘아래(下面)’	hunac
[수메락]	‘죽이다(殺死)’	sumeelaq	[후링]	‘개(狗)’	huling
[수메]	‘곰(熊)’	sume	[후미웁]	‘삶다(煮)’	humanguc
[수메붓]	‘타작하다(打穀)’	sumebuc	[히도이아이웅]	‘태양(太陽)’	hidoyayung
[수메뻬]	‘꿈(做夢)’	sumepi	[아랏]	‘오른쪽(右邊)’	ngarac
[수무개눔]	‘냄새를 맡다(嗅)’	sumukenux	[아이안]	‘이름(名字)’	ngayan
[수무내군]	‘따르다(跟隨)’	sumunegun	[이로]	‘버섯(香菇)’	ngiro
[수미노]	‘(그릇을)씻다(洗)’	sumino	[이오]	‘고양이(貓)’	ngio
[수뿌뚜]	‘과인애플(鳳梨)’	suputu			

2. 문장 예시(10)²⁹⁾

1. uka-ku pila
우까 꾸 빠라
없다, 나, 돈
나는 돈이 없다.

2. ini-ku ekan ido nana
이니 꾸 에칸 이도 나나
아니, 나, 먹다, 밥, 아직
나는 아직 밥을 안 먹었다

3. inita-i pila-mu di
이니따 이 빠라 무 디
아니, 보다-PF, 돈, 나의, <완료>
나의 돈이 없어졌다.

4. ini-ku kela
이니 꾸 깨라
아니, 나, 알다.
나는 모르겠다.

5. ini-ku sukuxun keya
이니 꾸 수꾸훈 게이아
아니, 나, 좋아하다, 그
나는 그를 좋아하지 않는다.

6. ini-ku-tilux saya ali

29) 세딕어 문장 10개는 張永利(2000, 61-149)에서 발췌한 것이다. 로마자 표기, 한글 서사, 단어 해석, 문장 의미, 이상 네 가지를 배열해 놓았다. '단어 해석'에 표시된 PF와 AF는 Patient Focus(피행위자 초점), Agent Focus(행위자 초점)의 준말이다. 이 자료를 통하여 알 수 있듯이, 세딕어는 한글로 서사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가 없다. 앞으로 長文 語料나 민요 가사 등을 발굴하여 한글로 서사하고, 이를 현지 세딕인들에게 읽도록 하거나 가르쳐 보는 실용화 단계의 연구가 이루어질 날 있기를 학수고대해 본다.

이니 꾸 띠를 사이아 아리

아니, 덩다, 오늘.
오늘은 덩지 않다.

7. uxe huling nii

우헤 후링 니

아니, 개, 저것
저것은 개가 아니다.

8. uxe-ku me-eyah kusun

우테 꾸 메 에이알 꾸순

아니, 나, <미래>, 오다, 내일
내일 올 수 없다.

9. ini-su-mu biq-i

이니 수 무 빅 이

당신, 나, 주다-PF
당신에게 주지 않았다.

10. iya kuberiq! uxe sino nii! ini-ku imah sino nana,

이이야 꾸베릭! 후헤 시노 니! 이나-꾸 이말 시노 나나

말라. 속이다. 아니다. 술, 이것, 아니, 나, 마시다. 술, 아직
속이지 마! 이것은 술이 아니야! 나는 아직 술을 마시지 않았어.
mu-kela-ku xue sino nii. uka sino, uxe-ku m-ekan ido.

무 깨라 꾸 후헤 시노 니. 우까 시노, 우헤 꾸 메간 이도.

AF-알다, 나, 아니다. 술, 이것, 없다. 술, 말라, 나, AF-떡다, 밥
알아 이건 술이 아닌 걸. 술이 없으면, 난 밥을 먹고 싶지 않아!

VI. 맺음말

無文 민족의 언어에 대한 한글 서사 방안 탐구는 먼저 해당 언어에 대한 조사와 채집, 그리고 음운 체계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만 가능하다. 다행하게도 타이완 세덕어에 대하여는 李壬癸(1991)과 張永利(2000) 같은 선행 연구가 있었기에 본

고가 작성될 수 있었다. 특히 張永利(2000)의 연구는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다. 한글 서사 체계의 창안은 사실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것의 밑바탕이 되는 언어 조사와 음운 체계에 대한 면밀한 연구가 몇 십 배 더 어렵고 중요한 일이다.

타이완 지역 언어학자들의 조사 연구를 통하여 밝혀진 세딕어의 머리자음은 18종, 꼬리자음은 11종, 모음은 5종이었다. 음성이나 음운에 대한 표기(notation)는 세밀 할수록 좋고, 언어에 대한 서사(writing)는 간략 할수록 좋다. 서사 체계는 의미 혼동이 야기되지 않는 한 편리할수록 우수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簡略 轉寫(broad transcription) 방식을 최대한 활용하여 세딕어의 음운 체계를 가급적 간소화 하였다. 그 결과 머리자음 15종, 꼬리자음 10종으로 줄였다(모음 5종은 동일). 그렇게 서사하더라도 의미 변별에 혼란이 일어날 가능성은 없을 것 같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도출된 세딕어 한글 서사법(안)은 ①머리자음(15): p/ㅍ/, t/ㅌ/, k(q)/ㄱ/, b/ㅂ/, d/ㄷ/, g/ㄱ/, c/ㅊ/, s/ㅅ/, h(x)/ㅎ/, l(r)/ㄹ/, m/ㅁ/, n/ㄴ/, ng/ㅇ/, w/우/, y/이/, ②꼬리자음(11): k/ㄱ/, q/ㄱ/, c/ㅊ/, s/ㅅ/, h(x)/ㅎ/, l(r)/ㄹ/, n/ㄴ/, ng/ㅇ/, w/우/, y/이/, ③모음(5): i/ㅣ/(이), u/ㅜ/, e/ㅐ/(에), o/ㅑ/, a/ㅏ/(아), 이상 총 31종 방식으로 요약될 수 있다.

그리고 기층 언어에서는 없으나 변화 형식에 등장되는 복자음, 의미 변별 기능이 없는 장모음은 서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것은 문제가 될 수 없다. 31종 음운에 대한 한글 서사 방식 가운데, k(q)→/ㄱ/, h(x)→/ㅎ/, l(r)→/ㄹ/, ng→/ㅇ/(머리자음)~/ㅇ/(꼬리자음)은 장점으로 볼 수도 있고, 단점으로 볼 수도 있다. 서사의 편의성을 고려한 苦肉之策이었으나, 언젠가 있을 실용화 단계에서도 예의주시하여 계속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 창안된 세딕어 한글 서사 체계를 237개 기본어휘와 10개 문장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적용시켜 본 결과, 세딕어의 한글 서사(입력) 과정에 문제가 전혀 없음이 증명되었다. 그렇다고 이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세딕어의 장편 語料, 즉 民謠 歌詞, 口碑 民譚 또는 傳説 등을 광범위하게 수집하여 한글 서사 체계를 적용해 보고 실용화하는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하나의 발단에 불과한 것이다. 앞으로 길게는 몇 백년간 지속적이고 끈질긴 연구와 부단한 시도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한글(훈민정음) 창제 이후 한국어의 한글 서사가 실용

화되고 일반화되기까지 몇 백 년이 걸렸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보자면, 앞으로 500년도 능히 감내할 수 있는 끈질김이 있어야 할 것이다.

【參考文獻】

- 김주원, 《사라져 가는 알타이 언어를 찾아서》, 태학사. 2008.
- 이연주 등, 《중국소수민족입문》(다니엘스 등 원저), 현학사. 2006.
- 이호영, 《국어음성학》, 태학사. 1996.
- _____, 〈찌아찌아어의 한글 서사체계〉, 훈민정음학회 2009 전국 학술대회(10월 9일 서울대학교) 발표 논문집. 93-98. 2009.
- 이호영·황효성·아비딘, 《바하사 찌아찌아1》, 한국학술정보(주). 2009.
- 전광진, 〈중국 내 소수민족(55) 언어의 지리 분포와 유형학적 특질〉, 《중국문학연구》 22, 343-367. 2001.
- _____, 〈중국 내 소수민족(55)의 서사체계 및 새로운 문자 창제〉, 《중국언어연구》 15, 195-228. 2002.
- _____, 〈로바어와 그 한글 서사법〉, 《중국언어연구》 17, 275-317. 2003.
- _____, 〈韓文의全球化: 瑤巴語韓文書寫法的擬訂和推廣〉, 《韓國語文研究》(대만) 2, 173-193. 2004.
- _____, 〈瑤巴語韓文書寫法的擬定〉, 國際漢藏言語學會 국제학술회의(Xiamen University, 2005. 10. 30) 발표 논문. 2005.
- _____, 〈중국경내 소수민족 언어에 대한 한글 서사 방안 탐구〉, 《중국문학연구》 37, 423-443. 2008.
- _____, 〈타이완 원주민 언어에 대한 한글 서사법 개발 연구〉, 《중어중문학》 45, 351-388. 2009.
- _____, 〈타이완 원주민 부눈족 언어의 한글 서사 체계〉, 《중국문학연구》 41, 257-280. 2010.
- _____, 〈타이완 남도어족 루카이어 한글 서사법 창제〉, 《중국문학연구》 44, 59-392. 2011.
- _____, 〈중국경내 어웡키족 언어에 대한 한글 서사법 연구〉, 《중국문학연구》 55, 97-126. 2014.
- 다니엘스, 〈오스트로네시아 어족의 집단(가오산족)〉, 《중국소수민족입문》(李妍周 등 번역, 서울: 현학사), 273-281. 2006.

- 戴慶厦 등, 《中國少數民族語言文字應用研究》, 雲南民族出版社. 1999.
- 魯洪柯, 《台灣少數民族-太魯閣》, 台海出版社. 2008.
- 潘 英, 《臺灣原住民族的歷史源流》, 臺原出版社. 2000.
- 楊秀芳, 〈賽德語霧社方言的音韻結構〉, 《史語所集刊》 47.4:611-706. 1976.
- 劉芳育, 〈我對臺灣南島語系民族語言文字化的幾點思考〉, 《中國邊政》 126, 35-39. 1994.
- 李壬癸, 《臺灣南島語言的語音符號系統》, 教育部教育委員會. 1991.
- , 《臺灣原住民史: 語言篇》, 國史館臺灣文獻館. 2003.
- 張永利, 《賽德克語參考語法》, 台北: 遠流出版公司. 2000.
- 陳 康, 〈南島語系〉, 《中國大百科全書(語言文字)》, 299-301. 1988.
- 陳康、馬榮生, 《高山族語言簡志(排灣語)》, 民族出版社. 1986.
- 陳雨嵐, 《台灣的原住民》, 遠足文化公司. 2000.
- 何大安·楊秀芳, 〈南島語與台灣南島語〉, 《台灣南島語言叢書》 1-36. 2000.
- 何汝芬 等, 《高山族語言簡志(布嫩語)》, 民族出版社. 1986.
- Asai, 淺井惠倫, The Sedik Language of Formosa. Kanazawa University Press, Japan. 1953.
- Li, Paul Jen-Kuei 李王癸, Reconstruction of proto-Atayalic phonology(古泰雅語音韻的擬測), 中研院史語所集刊 52.2:235-301. 1981.
- Pecoraro, Ferdinando, Essai de Dictionnaire Taroko-Francais. S.E.C.M.L. Paris. 1977.
- Peter Bellwood, "Formosan Prehistory and Austronesian Dispersal". Austronesian Taiwan. Edited by David Blundell. U.C. Berkeley. 336-364. 2009.

【中文提要】

為無文字民族語言擬定創立韓文書寫方案首先要對其語言進行調查，特別是對其音韻系統進行研究。慶幸的是李壬癸(1991)、張永利(2000)為台灣賽德克語進行的研究為本文提供了很大幫助，特別是張永利(2000)的研究起到了決定性的作用。創立韓文書寫系統其實不難，作為其基礎的語言及音韻系統的細緻研究才是難上加難，也是重中之重。以音韻系統的前人研究為基礎，最大限度地利用簡略轉寫(broad transcription)方式後得出的賽德克語韓文書寫

系統如下：

①聲母(15)： p/ㅍ/, t/ㅌ/, k(q)/ㄱ/, b/ㅂ/, d/ㄷ/, g/ㄱ/, c/ㅈ/,
s/ㅅ/, h(x)/ㅎ/, l(r)/ㄹ/, m/ㅁ/, n/ㄴ/, ng/ㅇ/, w/ㅇ/, y/ㅇ/

②韻尾(11)： k/ㄱ/, q/ㄱ/, c/ㅈ/, s/ㅅ/, h(x)/ㅎ/, l(r)/ㄹ/, n/ㄴ/,
ng/ㅇ/, w/ㅇ/, y/ㅇ/

③元音 (5)： i/ㅣ/(이), u/ㅜ/(우), e/ㅓ/(에), o/ㅗ/(오), a/ㅏ/(아)

如上所述，可共概括為31種書寫方式。根據本文擬定的賽德克語韓文書寫系統，對237個基本詞匯、10個句子的適用結果顯示，賽德克語韓文書寫(包括電腦輸入)過程未發現任何問題。當然我們不能滿足于此，將來還要對賽德克語的長篇語料，即民謠歌詞、口頭的民間故事與傳說等進行廣範圍地收集，並適用於韓文書寫系統，繼續推進該系統的實用化程度。本文只是一個開始，將來還需要長達幾百年的不懈研究與不停地嘗試。韓文(訓民正音)創立以後，韓國語的韓文書寫實現實用化、普遍化也曾經歷了長達幾百年的歷史。以此看來，未來500年我們甘受百折不停的努力，才讓韓文書寫可發芽。

【主題語】

China, Taiwan, Austronesian, Sediq Language, Hangeul, Writing systems.

투고일: 2014. 10. 13 / 심사일: 2014. 10. 20~11. 5 / 게재확정일: 2014. 11. 10